

담양군, 고서면 '모다들사랑채' 준공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올해까지 42억 투입...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 강화



담양군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고서면 '모다들사랑채'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이규현 전남도의원, 최용호 군의원 최현동 군의원, 최형식 전 군수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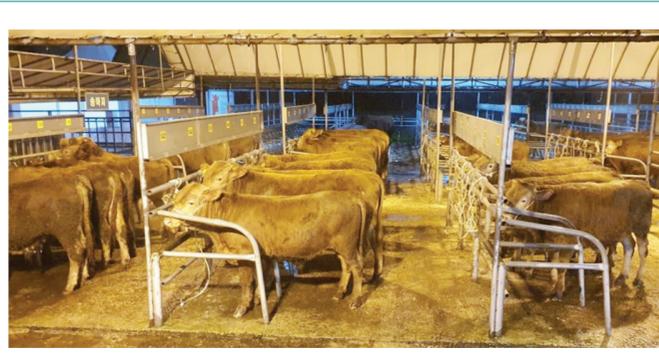
공적인 사업 양료를 축하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후 마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면 소재지를 배후 마을과 연결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모다들사랑채(다목적강당,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등)와 모다들쉼터(야외무대, 잔디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주민 교육, 동아리 활동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대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고서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다들사랑채가 앞으로 고서면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황룡우시장 새로 짓는다

2024년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장성군이 민선8기 공약인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최근 전라남도 군특공모사업인 '2024년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도비 포함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해 황룡우시장을 이전하고 현대화된 가축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1968년 황룡시장에 개장한 황룡우시장은 연평균 8000두의 소가 거래되는 장성의 대표 가축유통시설이다. 그러나 지은 지 50년이 지나며 노후된 시설이 문제로 부각됐다. 우시장 이용 농가는 물론, 주변

민가나 상가도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다.

새롭게 건립되는 가축시장에는 계류장, 경매시설, 퇴비사 등 필요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거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한우 유통거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이용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나주 청년인구 희망 있게" 전남 평균대비 3.1% ↑

나주시 '청년통계' 첫 발표...청년인구 비율 32.5%

나주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이 많은 전남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온 힘을 쏟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삶과 전반적인 사회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세분화한 '2023년 청년통계'를 21일 시청 누리집에 게시·공표했다.

이번 청년통계 발표는 2021년 여성통계에 이어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통계는 민선8기 시정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청년 패키지 '직장·주거·문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가구·경제·일자리·창업·복지·건강 등 6개 부문 102개 지표를 조사·분석했다.

통계 조사 결과 나주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 11만6456명(2022년 12월31일 기준)의 32.5%(3만7802명)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청년인구 비율 36.5%에 비해 4% 낮고 전남 청년인구 비율 29.4%대비 3.1% 높은 수치다.

나주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빛가람동(혁신도시) 1만8299명으로 전체 48.4%를 차지했다. 이어 남평읍(3597명), 송월동(3059명), 성북동(2962명), 금전면(1524명)

이 뒤를 이었다.

청년 중 55.9%는 배우자가 있고 혼인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2925쌍으로 집계됐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은 34.52세, 여성은 31.59세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는 5388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4.3%를 차지했다. 주택 수는 총 7175호에 1인당 1.33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취업자는 2만4800명으로 고용률 66.5%를 기록했다.

종사 산업 분야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이 40.8%(1만100명)로 가장 높았다.

직업군으로 사무종사자 30.1%(7500명), 관리·전문가 22.7%(5600명), 서비스·판매종사자 17.6%(4400명) 순으로 분석됐다.

나주시는 3년 주기로 청년통계를 분석·발간해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기동취재본부



화순군, 2023년 식량·원에 평가 최우수상 수상

화순군은 지난 18일 나주에서 열린 식량정책 분야 활동 워크숍 행사에서 전라남도 2023년 식량·원에 평가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식량정책 분야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률 96.4% ▲논 타 작물 논농 지원 확대율 90.4% ▲적정 생산(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 작물) 목표 이행률 113%를 달성하여 큰 점수를 획득했다. 아열대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

성 및 시설하우스 면적 6ha 추가 확대 ▲과수 분야 지원사업 지원 실적 ▲원에 특작 국·도비 공모 및 스마트팜 국비 사업 38개소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농식품부의 목표 달성에 함께 힘쓰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눈썰매장·얼음 봅슬레이 내년 2월 25일까지 무료개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겨울철을 맞이해 23일부터 '겨울놀이터'를 개장해 눈썰매장, 얼음 봅슬레이, 컬링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내년 2월 25일까지 휴장일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겨울 체험시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녀노소 스키와 낭만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일부터 '불명타임 고구마, 가래떡 구워먹기 체험'을 주말과 공휴일 하루 2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일 23일부터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트리 풍선모자를 매회 10개씩 선물로 제공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명타임 보이는 라디오' DJ가 전하는 노래와 사연을 듣는 힐링 시간과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조성으로 마음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